

흙 살리기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정진석

농협중앙회 영농자재부장

Directions for the Soil Revitalization Movement in Agriculture

Jin Seok Chung

Farming Materials Department,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Summary

The soil revitalization movement is the important approach to intensify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sustainable agriculture for the future. The soil have been polluted by abusing chemical fertilizer and inflow foul water from factories and houses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That's not only farmer's responsibility but all of us. The cooperative efforts are needed to preserve soil and environment.

I. 머리말

흙은 농업생산의 기반이며 인간 생활의 바탕으로서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흙을 나타내는 '土'자를 보면 위획(-)은 지표(地表)를, 아래획(-)은 지중(地中)을, 가운데 획(丨)은 지중에서 싹이 터 지표를 뚫고 자라는 식물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만물이 자라나는 곳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부터 하늘은 아버지(남성)로 땅은 어머니(여성)로, 혹은 씨앗은 남성으로 밭(땅)은 여성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흙은 생명체로서 모든 생물이 숨을 쉬듯이 흙은 살아 있기 때문에 흙속에 살고 있는 토양미생물도 숨을 쉬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가 하면, 흙을 바탕으로 한 식물도 왕성하게 자라게 된다.

인류문명의 발상지도 강과 비옥한 토지가 있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흙의 생명력과 함께 흥망성쇠를 같이하여 흙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온 문명은 융성했고, 그렇지 못한 문명은 소멸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물질 문명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로 인하여 오존층이 파괴되고 사막화가 진전되는가 하면 산성비가 내리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초래되고 있어, 지구 환경보전은 인류의 최대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공장폐수와 도시의 생활하수, 축산폐수 및 비료·농약위주의 화학농법 등으로 농지의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고, 익충과 천적생물이 사라짐은 물론 병충해가 증가됨에 따라 지구의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1992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채택한 "리우 환경선언"은 지구환경보전과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세계 모든 국가가 실천해야 할 의무를 Agenda 21로 명시하고 있다. 농업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팽창 일로에 있는 지구 인구를 부양해야 할 양식을 생산하여야 하므로 Agenda 21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천 과제인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토개발"을 위한 농업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 국토가 지금은 여러가지 환경오염으로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흙이 병들면 인간의 생활 환경도 황폐해지고 오염된 농토에서 생산된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며, 특히 일부 시설재배지역의 토양상태를 보면 인산, 가리 등 특정비료 성분이 과다하게 집적됨에 따른 양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향후 수년 내에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가 대량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며 이로 인하여 토지의 생산력이 떨어짐은 물론 농업의 지속여부 조차 극히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협은 창립 35주년에 즈음하여 흙의 생명력을 복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아울러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가는 계기를 삼기 위하여 흙살리기운동을 제창하고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현재 농협에서 전개하고 있는 흙 살리기운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II. 흙 살리기운동의 효율적 추진 방안

1. 운동의 개요

가. 흙 살리기운동의 의의

흙 살리기운동은 우수농산물 생산과 환경보전형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을 목적으로 토양진단 등을 통해 건강한 흙을 만들어 가는 흙의 생명력 회복운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곧 흙을 살리는 생명운동이며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는 환경운동으로서 21세기를 맞이하여 민족의 먹거리를 영원히 담당할 우리 농업을 지키고, 나아가 무한경쟁시대에 농업의 경쟁력을 배양하여 우리농업을 살리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나. 표어 및 엠블럼

표어	엠블럼
<p>생명창고! 흙을 살리자</p> <p>건강한 흙, 좋은 농산물</p>	<p>푸른하늘 울트는 새싹은 환경</p> <p>보전과 좋은 흙을 상징</p>

2. 흙 살리기운동의 추진 방향

가. 흙 살리기운동의 주체는 농민

사람도 몸에 병이 들면 본인 자신이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의사의 도움을 받아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듯이, 병들어 가고 있는 우리 농토를 살리는 운동도 땅의 주인인 농민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흙 살리기운동은 농민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식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내 몸에 무슨 병이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정확한 진단이 병치료의 기본이듯이 흙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민 각자가 자기 땅의 병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25,000여 작목반장, 새농민 수상자 등 지도자를 대상으로 흙 살리기운동의 기본정신 및 기초적인 토양검정 요령을 교육할 계획이다. 간이토양검정기(A-PEN)를 작목반장에게 공급하여 작목반원들과 함께 직접 영농현장에서

농토를 검정, 내 땅이 어느 정도로 병들었는가를 실감케 함으로써 토양검정을 통한 흙 살리기 운동의 붐을 일으킬 계획이다.

과학영농은 토양검정에서부터 비롯됨을 농민은 누구나 실감해야 한다. 이처럼 흙 살리기 운동은 농민이 스스로 추진하되 입으로만 외치는 운동이 아니라 토양검정 → 시비처방 → 토양개량제 공급 → 토양개량으로 이어지는 과학실천 운동이다.

나.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1) 「내고향 흙 살리기 500만 회원」 모집

흙 살리기운동은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고 있지만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 모든 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은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야 할 과제이므로 농협은 전계통사무소를 통해 1구좌당 1,000원 이상으로 하는 「내고향 흙 살리기 500만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회비를 최소단위인 1,000원 이상으로 한 것은 초등학교 학생일지라도 흙 살리기운동에 뜻을 같이하면 동참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의 문을 온 국민에게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이다.

사실 우리농토가 황폐화 된 요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화학농법에 의존해 온 농민에게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보다도 더 큰 요인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각종 공장폐수·도시생활하수 등이 농업용수로 유입되어 농토를 오염시킨 데 있다. 따라서 흙 살리기운동은 농민이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전국민이 동참해야 할 운동인 것이다.

내고향 흙 살리기 500만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해 주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산업폐기물의 무단방치와 공장폐수를 방류하는 악덕업자 감시 및 고발 등 제반 활동을 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국토가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여기에서 모아진 금액은 흙 살리기에 소요되

는 토양분석의 기자재 구입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과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각종 활동 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 흙 살리기운동 선포 및 기자재 전시 행사

농협은 창립 35주년인 금년 8월 14일에 전국 500만 농업인들의 대표인 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흙 살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결의하고 이의 부대행사로 토양분석기, 공동퇴비제조장 모형, 완효성비료, 농협퇴비를 비롯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흙 살리기 관련 기자재를 한데 모아 8월 13일과 14일에 양일간에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흙 살리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였고,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작목반장, 영농회장 등 농업인이 중심이 된 추진 결의대회와 기자재전시회를 9개 시·도지역본부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여 흙 살리기 공감대 확산에 크게 이바지 할 계획이다.

3) 흙 살리기 각종 홍보

모든 운동은 초창기에 붐 조성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일간신문과 농민신문을 비롯한 농업전문지에 행사 관련 기사 및 기획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하고, 라디오·TV에 직접 출연 또는 특집방송을 추진하여 방송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토양의 문제점과 흙 살리기의 타당성을 담은 만화를 만들어 전국 국민학생에게 배포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포스터·리후렛·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또한 토양과 비료, 작물재배법 등을 수록한 기술정보지도 창간하여 농업인들이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이론적인 지식 함양에도 힘쓰겠다.

다. 토양진단에 의한 건강한 흙 만들기

1) 『토양진단센터』설치 및 농협형 토양검정기(A-PEN) 공급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처방이야 말로 흙 살리기운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일이므로 이 운동의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농협토양진단센터』를 11개소 시범적으로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30개소씩 2000년까지 총 15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토양진단센터』는 문제가 있는 흙을 치료해 주는 흙에 관한 종합병원으로서 농업인이 분석의뢰할 경우 종합처방서인 시비처방서를 전산으로 발급해 준다.

<표 1> 토양진단센터 설치 계획

년 도	'96	'97	'98	'99	2000	계
개 소 수	11	30	30	30	50	151

농업인은 이 처방서에 의거 자기농지에 부족한 질소·인산·加里 성분을 보충해 주고 토양개량과 유기질비료의 공급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작물이 생육하기에 알맞은 토양으로 흙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농협은 농업인이 자기 농지의 토양상태의 이상유무를 스스로 진단해 보기 위해 기존제품 보

다 조작이 간편하고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농업인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농협형 토양검정기(A-PEN)를 새로 개발하여 금년 하반기에 1,000대를 전국 우수작목반에 공급하고, 이후 5년간 확대 공급하여 농업인들로 하여금 자기토양검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표 2> 토양검정기 공급계획

년 도	이미공급	'96	'97	'98	'99	2000	계
수 량	555	1,000	700	500	400	400	3,555

2) 토양진단 기술 향상 및 시비지원 강화

토양진단센터 운영사무소는 직원 1명 이상을 시비 진단기술자로 배치토록 하여 토양분석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시비진단훈련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을 매년 교육시켜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의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직 토양진단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농협은 농촌지도소 토양검정실, 제일분석센터, 인근 농협 토양진단센터 등에 의뢰하여 토양분석을 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 분석비를 일부 지원하여 토양진단사업이 전국적으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금년에 개발 보급한 시비처방서 PC프로그램을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적용하는데 더욱 편리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3) 저원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비 개선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증산에 역점을 두는 농업정책을 펼

치다 보니 화학비료 위주의 약탈농법으로 인해 농지의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토양분석에 의한 토양상태에 알맞은 시비처방을 한다면 현재보다 약 30%의 비료대(약 1,000억원)를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 소득제고는 물론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본다.

특히,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정책 사업으로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매년 공급하

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고부담 80%와 지방비 부담 20% 등 전액 무상지원하여 6년을 1주기로 전국 농토를 개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부녀화로 인해 토양개량제의 살포가 큰 문제였음을 감안하여 내년 1월말까지 총 2,300대의 살포기를 전국에 공급하여 시비의 기계화도 이룩해 나갈 계획이다.

<표 3>

토양개량제 및 비료살포기 공급계획

구 분	'96	'97	'98	99~2004	비 고
토양개량제(천톤)	316	438	590	3,540	
비료살포기(대)	1,300	1,000	750	750	3,800

주) 비료살포기는 '99년까지 공급

내년부터는 비료수입 개방이 자유화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지역별·작물별로 토양상태에 알맞은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 BB(Bulk Blending)공장을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건설토록 하여 현장에서 농업인의 요구에 의거 배합한 BB비료(배합비료)를 공급하여 종전의 토양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복합비료의 시용에 따른 농지 황폐화의 방지와 비료대의 절약으로 농업생산비를 줄이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한다.

4) 땅심 돋우기

흙은 말없이 일을 한다. 흙에 독극물이 있으면 이것을 잡아두어 식물의 뿌리를 비롯한 토양생물을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그러나 어느 한계 이상의 일은 할 수가 없다. 늙고 병들면 사람도 일을 할 수 없듯이 흙도 늙고 병들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흙의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땅심을 잘 관리해 주어야 한다. 땅심을 높게 유지하는 요결은 침식을 막고 투수성을 양호하게 조절하면서, 통기 투수성이 좋으면서 물과 영양을 충분히 저장하

게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영양원이 가급태로 요리되게 하는 것이다. 살림집이 설새 없이 손 볼 곳이 생기듯이 흙에도 변화가 많다. 흙은 자주 검정하여 개선하고 보충해야 한다.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땅심을 돋우기 위해 농협은 총 63개의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여 연간 160천톤의 양질의 퇴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아직까지 운영기간이 2년 이내로 짧고 제조기술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금년 9월 20일에는 “공동퇴비제조장운영 전국협의회”를 구성하였고, 10월에는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 제일분석센터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동퇴비제조장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지도와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퇴비제조장은 농촌 환경오염의 가장 큰 문제인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지력증진이라는 과제를 목표로 생산원가 수준으로 농가에 공급하다 보니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정부에서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현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퇴비를 대량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동퇴비제조장 생산 퇴비로는 지력증진을 위한 절대량이 부족하므로 전국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중 우수한 업체를 발굴하여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전국에 계통 공급하고 있다.

<표 4>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현황

년 도	'93	'94	'95	계	비 고
개 소 수	12	36	15	63	

5) 지속농업을 위한 환경보전형 자재 개발 공급

지금은 환경문제가 인류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이제 농업도 지속농업을 위해서는 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해야 할 때다. 일부 시설채소 지역의 경우는 인산과 가리의 성분이 기준치보다 32.4%가 과다 집적되어 있어 토양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작물의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금년에 남해화학에서는 인산과加里성분을 대폭 낮춘 신세대복합비료(22-12-12)를 개발하였고, 경기화학에서도 저가리벼이삭거름

(18-0-15)을 개발하여 '97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비료효과가 90일에서 210일까지 지속되어 단 한 번의 시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완효성비료를 공급하여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성분의 집적을 막도록 하겠다. 이제 우리 농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농업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여기에 수반되는 수도용과 원예용 배양토(상토)를 중앙회에서 계통으로 공급하는가 하면, 관주 및 엽면시비가 가능한 액상비료(제4중복합비료), 근권시비용 비료도 적극 개발 공급토록 하겠다.

<표 5> 비 종 별 개 발 연 도

비 종	21 - 17 - 17	18 - 0 - 18	피복요소 복 비	21 - 9 - 17 21 - 11 - 21	22 - 12 - 12 18 - 0 - 15
개발연도	'77	'82	'87	'91	'96

요즘 농촌들녘에 폐영농자재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농촌환경보전에 큰 어려움이 있는 바, 농협에서는 전 계통조직을 활용하여 빈농약병 수거, 폐비닐·폐농기계 등 폐영농자재수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늘푸른 농촌환경을 가꾸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 정부, 관련단체의 지도 지원과 발전방향 모색

1)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도 지원과 협력체제 구축

흙 살리기운동은 농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하므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과제중 상당한 부분이 정책사업 또는 정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본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이 운동의 핵심사

업인 토양검정은 농촌지도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농업인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농협과 시·군농촌지도소는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토양진단사업이 정착하고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흙 관련단체 및 기타단체의 적극적인 동참

이제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양위주에서 건강과 향기, 맛 등 질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농업도 과거의 수도작 위주의 단순영농에서 탈피하여 유기농업, 자연농업 등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농업인들도 각 지역별, 품목별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흙 살리기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위해 한국토양비료학회 등 학계의 협조와 환경운동연합·소비자단체·한국유기농업협회·자연농업협회·광목회 및 각 영농자재협회 등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농업인을 비롯한 전 국민속에 튼튼히 그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리라 믿는다.

III. 맺 는 말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일컬어 온 말 가운데 풀을 보기 전에 김을 메는 농사꾼을 상농(上農), 풀을 보고서야 김을 메는 농사꾼을 중농(中農), 풀을 보고도 김을 메지 않는 농사꾼을 하농(下農)이라 했다는 옛말이 있다. 상농은 흙을 잘 관리하고, 중농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하농은 필요해도 안하고 내버려 둔다는 의미이다. 상농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까지도 볼 줄 아는 혜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흙을 기쁨지게 가꾸고 뿌리를 튼튼히 가꾸는 일이 농사 잘 짓는 비결임을 터득한 사람이 상

농이다. 그렇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참 슬기이다.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가는 비결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좇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찾아 정진해야 하는 것이듯이 우리 농업을 진정 살리는 비결 역시 농업의 바탕이요 뿌리인 흙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이 만고의 진리가 아닌가! 흙이 생명력을 잃는다면 오늘날 농업을 살리려는 모든 수고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임을 볼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WTO시대의 냉엄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날 농업부문도 완전 경쟁,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앞에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 모든 면에서 취약한 우리 농업이 흙 살리기운동을 통해서 튼튼한 새로운 농업기반(New Agricultural Infra)을 구축하여 자손만대 영원히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민족의 생명창고를 튼튼히 지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관련 제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지도 지원과 함께 동참하므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길이 후손에 물려 줄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흙의 진리는 수고하고 공들인 만큼 정직하게 보상받는 데 있다. 농부가 흙을 정성드려 기쁨지게 가꾸면 흙은 풍성한 열매를 내놓지만, 흙을 가꾸지도 않고 흙심만 다 빼먹고 황폐화시키면 끝내 흙은 열매를 내놓지 않는다. 흙의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용납되지 않는다. 땀 흘리지 아니했는데 보상이란 있을 수 없다.

내고향 흙 살리기 500만 회원모집으로 흙 살리기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될 때 우리 국민은 “흙의 진리”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회가치 기준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정직한 백성이 되자는 새바람이 불고, 윤리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사회기풍이 살아날 것이다. 이는 고도화된 산업사회로의 급진전전에서 온 온갖 부정·부패·향락주의·물질주의·사회부조리등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병폐를 근원적으로 치료하여 도덕사회를 실현함으로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 민족이 세계 인류문명을 새롭게 엮어가는 일류국가를 이룩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하는 운동으로 평가될 것이다. 곧 흙 살리기 운동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참생명운동」이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 이 지구를 덮고 있는 흙, 한 번 황폐화되면 영원히 회생되지 못하거나

2~3천년이 걸려야 바윗돌에서 겨우 10cm 정도의 새 흙이 만들어지는 흙, 오늘은 나를 살리고, 내일과 모래는 내 아들과 손자를 살릴 흙, 이 흙 위에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흙을 보전하고 흙심을 키워야 한다. 이는 하늘의 소명이다. 하늘의 소명을 깨닫고 실행하는 운동 이것이 흙 살리기운동의 알파요, 오메가이다.